

1. 지원 동기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워"

호주 시드니타워에서 근무할 때, 이슬람교의 단식기간인 라마단 달에 여행을 온 무슬림 가족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가족은 한 눈에 보기에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중히 다가가 아랍어로 인사를 나누고 지친 그들을 격려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랍어를 하는 저를 보고 놀라셨지만, 이내 함께 사진을 찍으며 친해졌습니다. 그 가족이 여행을 마친 후, 저는 작은 선물 하나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밤 늦게 까지 하는 양고기 전문점의 주소가 적힌 쪽지였습니다. 그 가족은 해가 지면 식사를 할 수 있지만, 마땅한 식당을 찾을 수 없어 고민하였는데 고맙다며 여러 번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타인을 위한 작은 배려가 큰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대한항공은 사람을 사랑하고 고객을 가족처럼 아끼는 마음으로 세계의 우수 항공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위드(WITH)캠페인'을 통해 '1사 1촌'과 같은 사회 공헌 활동을 보며 저도 사랑을 직접 실천하는 승무원이 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대한항공의 기업이념 아래 사랑과 배려심으로 고객감동을 이끌어내는 꽃보다 아름다운 승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2. 입사 후 계획/포부

"고객과 通하겠습니다"



저는 세가지 키워드로 고객과 소통하는 승무원이 되겠습니다.

첫째, 가장 크고 환하게 인사하겠습니다. 만남에 있어서 첫인상이 중요하듯이, 서비스에서 인사는 고객과 처음 소통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순간을 가장 크고 환한 미소로 맞이하여 고객께 행복한 여행의 시작을 선물하겠습니다.

둘째, 저만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대학 시절, 뜨개질과 칵테일 조주법을 배우며 저만의 차별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통해 기내에서 특별한 날을 맞이하신 고객께 저만의 맞춤서비스로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셋째,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겠습니다. 호주 시드니타워에서 근무하며, 고객의 모국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서비스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공인 아랍어뿐 아니라, 중국어와 영어회화를 꾸준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입사 후에도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고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며 고객과 소통하겠습니다.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연구하고 실천하며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고객과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는 대한항공의 맞춤 승무원이 되겠습니다.